

2025. 12. 19.[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의원실) 010-2763-539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방문

2025년 12월 19일 (금) 10:00, 현대제철 당진공장

- 을지로위원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찾아 산업재해 현장 방문
- 민병덕 국회의원, “해법은 책임 공방이 아닌 노·사 간의 실질적 대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주요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대제철 관계자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연주 스카핑 공정과 원료공정(TT-49 타워)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설명을 들은 뒤,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주 스카핑 공정은 연주된 반제품(슬래브)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며, 원료공정 TT-49는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던 원료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라인으로 분기시키는 이송 설비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위험 공정에 대한 관리 강화와 현장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사업장이다. 그런 만큼 이번 방문은 을지로위원회가 해당 공정들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여건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을 요청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원·하청 교섭 문제와 산업안전 문제 등 현장의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을지로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현장 점검 이후 “현장을 직접 보니 노동 환경 전반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며 “산업재해 문제는 책임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노와 사가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는 대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과거 한화오션 현안 해결 과정에서 노사정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법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오늘 현대제철 현장 역시 당시 한화오션 사례와 유사한 점도 많다”며 “대화가 단절될수록 갈등은 커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해법은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논의를 지속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참고자료] 행사사진

